

圖書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1년도
전반기 교육훈련연구원 개강
3월4일(주일)에서 6월9일(토)까지

예수 그리스도도는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해 오신 마디만이 필요할 것이다. 성경대로! 복음사
 의 기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았다. 그리고 그
 는 예수께서 말씀에 성취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
 였다(마 26:54, 막 14:49, 눅 24:27, 요 19:28,36). 그
 러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
 로 충만한 생애를 사셨을 것을 확신하게 된다. “내가 성
 도인인 역사에 있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
 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선 성경
 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게 말씀하셨다. ‘내가 성
 도인인 영성에 있어 좀 쉼있고 그 성경을 삼고거하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안이 즐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성에 이르게 하고 예
 수 그리스도도 함께 믿는 것이다.”

3월 4일(주일)부터 교육훈련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성경공부 부원이 개설된다.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 새롭게 변화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양성하며, 사회와 세계를 향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2001년 전반기 교육훈련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제2교육관 1층(코이노니아홀)

주중에개방, 모임 및 친교의 장소로 활용키로
2월 19일(월)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교회는 제2교육관 1층(코이노니아홀)을 주중에도 개방하여 교회 내의 각종 모임 및 친교, 청년부 활동 등을 했다. 주로 고대정(도동부, 대학부, 청소년부)의 교육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2교육관이 이제 전 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친교의 공간으로 그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교회의 위치상 어려웠던 개인의 만남, 간단한 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게 됨으로 보다 활발한 교제 및 전도가 이루어 질 것이다. 코이노니아홀은 우리 교인들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주중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하게 되고, 주일은 고대청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2001년 제1차 학습 세례 문답
2월25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시행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하는 믿음
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믿음의
외적 선언이며,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연합의
내적 선언이다. 그러므로 학습과 세례에 동참하는 이
들이 더욱 더 진지하고 철저한 준비가 있기를 바란다.
(인정: 오로목 표를 참조)

1) 주간성경공부

내 역	시 간	간 사
전 도 서	화. 오전 10시	김동하
칼라다이어	화. 오전 10시	김영훈
크로스아이언	화. 오전 11시30분	류병희
칼라다이어	수. 오후 7시30분	김영훈
크로스아이언	수. 오후 12시30분	이종대
크로스아이언	수. 오후 12시30분	이종근
크로스아이언	수. 오후 12시30분	김인식
시 련	수. 오후 12시30분	안영국
열 강 기 하	수. 오후 12시30분	여경미
예 소 스	수. 오후 12시30분	이종근
로 스	수. 오후 12시30분	노국경
일본어 생활반	수. 오후 12시30분	서한진
디도세(대문제)	수. 오후 2시10분	임태호
예 소 결	수. 오후 2시10분	여국근

* 구역장 영성훈련 실시기간 (3월 25일 ~ 5월 13일) 중 시간변경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 오후 1시 50분
수요일 오후 2시 10분 → 오후 3시 30분

2) 직분자양육반

구역장 영성훈련 : 2001년3월 25일 ~ 5월 13일(매주 수요일 12:40 ~ 13:40, 8주)

권사·구역장·권찰 남성 구역장	위임목사 외 교구목사 위임목사 외 교구목사	수요 1부 예배 후 수요 2부 예배 후	교구별장소 벧대니홀
---------------------	----------------------------	--------------------------	---------------

과 목	강 사	시 간	장 소
인수집사 교육	이흥성 목사	화요일 새벽예배 후	교육관 109
권사 교육	이종대 목사	수요일 1부 예배 후	선교관 104

3) 찬양대원 양성부

- 교육기간: 3월 4일 ~ (13주간)
- 장 소: 베다니홀
- 시 간: 매 주일 낮 15:00 ~ 16:50

복합시간	1교시(1000 ~ 1050)	2교시(1600 ~ 1650)
	강의 제목	강 사
3월 11일	경제 여백	한정현(정책·자격)
3월 12일	기초 이론	노준환(교수·이론)
3월 18일	교과 시험	노준환(교수·시험)
3월 25일	중급 시험	김종철(중급·시험)
4월 8일	교과 기구 시험	김종철(교과·시험)
4월 15일	전습기 연구실	김광진(전습기·대론)
4월 15일	복식회계과목 특성	김광진(복식회계과목·설명)
4월 22일	복식회계과목 특성	김광진(복식회계과목·설명)
4월 29일	영역예과목과 전장-1	영역예과목과 전장-2
5월 6일	복합 연습	김소연(복합·연습)
5월 13일	복합 연습	김소연(복합·연습)
5월 20일	복합성 합동지도	김광진(합동·지도)
5월 27일	복합성 합동지도	한정현(합동·지도)
5월 27일	복합성 합동지도	한정현(합동·지도)

4) 영어성경공부반

과 목	시 간	장 소	강 사
대 학 반	주일 09:00-11:50	봉사관 G2	오규원 집사
청년1반	주일 09:00-10:50	봉사관 G2	Paul Chung
청년2반	주일 09:00-10:50	봉사관 G2	이정협 집사
성인1반	주일 09:00-10:50	봉사관 G2	Mark Grubb
성인2반	주일 09:00-10:50	봉사관 G2	George Olson

5) 교사양성부

- 교육기간 : 3월 4일 ~ 6월 24일(17주)
- 장 소 : 교육관 301호
- 시 간 : 매 주일 오후 3:00 ~ 4:50

목차/기	12시15분 ~ 15:00	2교차기16:00 ~ 16:50
	강사의 제목	강사의 제목
3월 4일	국제화제	면담 및 오리엔테이션
3월 11일	국제화제	주요기관
3월 18일	신약개론	이종문 신약개론
3월 25일	신조교리 및 실제	주요기관 & 행정
4월 1일	심판론	여근구 반복회
4월 8일	심판개론1	신약개론교
4월 15일	심판개론2	신약개론교
4월 22일	성경과 주교님상	김희하 교회학개론
4월 29일	교회와 주교님상	김희하 교회학개론(실제)
5월 6일	전도도 이론	전도도 실제
5월 13일	예배론	김범태 교회교사
5월 20일	성경과 사서신앙의 양육	최정호 교사의 영성
5월 27일	성경과 사서신앙의 양육	최정호 교사의 영성
6월 3일	학제간 대화	김희하 교회학개론
6월 10일	교회와 주교님상	김희하 교회학개론(실제)
6월 17일	성경 성서신학 이해	이승욱 수료예배

6) 전도대원 훈련과정

- 교육기간 : 3월 7일 ~ (8주간)
- 장 소 : 나사렛홀
- 시 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00 ~ 5:00

주	과목
1주	전도의 의의
2주	전도의 내용
3주	경신의 의미와 내용
4주	전도의 구체적 방법
5주	전도의 실습 1
6주	전도의 실제적 문제
7주	전도의 실습 2
8주	전도의 실습 3

7) 전반기 LMTC

- 교육기간: 3월 3일 ~ 6월 23일(16주간)
- 장 소: 베다니홀
-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5:00 ~ 8:00

날짜	과목
3/3	개강예배: 이만리읍 개척선
3/17	하느님의 말씀 나누는 계회
3/30	모든 교우를 위한 해사리: 예수 그리스도
3/24	한글교사님 속담 선고
3/31	새해 첫날의 영적식 개관: 주님의 관음에서 본 100년
4/7	단기선전사의 실제적 사업 사례
4/14	새시대 내선일도
4/21	최후의 개척지
4/28	문화와 복음증거
5/12	복음의 위해 준비된 세상-1
5/19	복음의 위해 준비된 세상-2
5/26	기쁨을 얻기위한 세계복음화의 거대한 그림
6/2	말씀 실천
6/9	개척지에서의 최후적
6/16	선교사, 교회 파송기관
6/23	종교개혁: 지역교회의 선교활동

2001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11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정원인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서광진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기독론 (정해성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이종대 목사)	교육관 307호		
2월 18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인식 목사)	교육관 407호	세례란?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이홍성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 답	교구별 장소	문 답	교구별 장소		
2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	(자녀 찬양예배, 분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I Know

(Job 19:25)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that in the end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Job lived through a very, very difficult situation. Satan had destroyed everything but his life. His relatives, neighbors, and those who we might call "best friends" blamed him for the troubles in his life. Instead of comfort, these people brought affliction. To them, their intentions were appropriate and proper. They believed they were consoling him, but actually they were slandering him instead of making him peaceful. How often do we find in trouble that our "best friends" are really accusers? From this terrible situation, Job was able to proclaim his faith in the Redeemer, "As for me,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at the last He will take His stand on the earth" (v. 25). His faith in his Redeemer, absent the incarnation,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of Jesus is remarkable. He believed in what would happen, whereas we believe in what has happened. Let's learn from him about our living Redeemer.

Job had a best friend, a true friend, among cruel friends. He calls Him "my Redeemer", and looks to him in his trouble. He knows his Redeemer as a kinsman, nearest to him of all family. And it's true, there is no kinsman so near as Jesus. None so close and none so kind. Jesus' love is voluntary. He is not forced to be a brother, but so in heart, and by His own choice of our nature. As such, He is more than a brother. He's not ashamed to call believers His brethren, "For both He who sanctifies and those who are sanctified are all from one Father; for which reason He is not ashamed to call them brethren"

(Heb. 2:11). Amen! Even when His disciples had forsaken Him, He still called them "my brethren" (see Mt. 28:10). Jesus is an eternal kinsman, "Who wi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Wi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peril, or sword" (Rom. 8:35)?

Job looks to his Redeemer as his kinsman, and as his vindicator. Indeed, Jesus will exonerate us from every false charge by pleading the causes of our soul. He will defend us from every jibe and jest. He will even absolve us from true charges by bearing our sin Himself and becoming our righteousness through justification. He will acquit us from the accusations of Satan, "The Lord said to Satan, 'The Lord rebuke you, Satan'" (Zech. 3:2). How reassuring is the voice from heaven that says, "Now the salvation and the power, and the kingdom of our God and the authority of His Christ have come, for the accuser of our brethren has been thrown down, he who accuses them before our God day and night" (Rv. 12:10).

Amen! Jesus is our vindicator. He is the Redeemer who releases us from bondage. He is the Redeemer of lost estates, privileges, and joys. He redeems us from the hand of the enemy. Redeeming both by price and by power.

Job had real poverty among absolute poverty. He speaks of "my

as an intercessor to plead in heaven for him. He held his Redeemer as a defender to preserve his rights on earth. Moreover, Job looked to his Redeemer as his righteousness, to clear him at last. Do we have a living Christ or do we have a dead Christ in our church? Are you departing from Christ or are you coming to Him as your divine vindicator who abides in the power of endless life?

Job had absolute certainty among uncertain affairs. He confesses, "I know". He had no doubts about this matter. Everything else may have been questionable, but this was certain. His faith made him certain. Indeed, faith brings sure evidence. It substantiates what it receives and make us know. Job's trials could not make him doubt. Why should they? They touched not the relationship of his God, or the heart of his Redeemer, or the life of his Vindicator. His difficulties could not make him fear failure on this point, for the life of his Redeemer was the source of deliverance which lay out of himself, and was never doubtful.

Happy is he who can say,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Do you have this great knowledge? Do you act in accordance with such an assurance? Will you not at this moment wholeheartedly adore your loving Kinsman? At the start of this new year of 2001, I hope your sure of your Kinsman, Vindicator, and Redeemer. Like Job, I pray you know that your Redeemer lives. Unlike Job, I pray you know the ease of your faith!



*Job will cling to Him forever and ever
because He is his only hope
in life and death.
He believes he may lose all else
but never the redemption of his God,
the kinship of his Savior*

redeemer lives", as meaning everything else is gone but his Redeemer. His Redeemer is still his own, and lives for him. Job accepts Him as such, and leaves himself in His hands. He has felt somewhat of His power already, and is confident that all is well with him, even in his terrible situation, since his Redeemer is also his Protector. Job will cling to Him forever and ever because He is his only hope in life and death. He believes he may lose all else but never the redemption of his God, the kinship of his Savior.

Job had a living kinsman among a dying family. He knew the great Lord as ever living, as the everlasting Father who would sustain and comfort him. He believed that the Lord was the head of his house. He held his Redeemer



김 성 관 목사

내가 알기에는 (욥 19: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진정한 구속자

욥은 몸시도 어려운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마귀는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의 친척과 이웃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욥의 인생에 있어서의 시련에 대해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위로 대신에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욥을 권고하려는 자신들의 의도는 적절하고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욥을 위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욥에게 평안을 주기보다 그를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실제로 비난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이런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욥은 구속자에게 그의 믿음을 권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25절). 예수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자에 대한 욥의 믿음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믿는 것에 반하여 우리는 이미 벌어진 일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구속자에 대하여 욥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형제

무정한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욥에게는 가장 좋고 진실한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욥은 그를 “나의 구속자”라고 불렀으며, 시련 중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구속자가 친절한 사람이고, 모든 가족들 속에서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예수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가까이 있으리라 예수보다 더 가깝고 친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그는 우리가 죄에 몰든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강제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애정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형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육신의 형제보다 더욱 친밀한 분입니다. 또한 그는 믿는 자들을 자신의 형제로 부르는 것에 대해 부르시기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각종하게 하시는 자와 각종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히 2:11). 아멘! 그의 제자들이 그를 버렸을 때마저도, 그

는 여전히 제자들을 “나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마 28:10).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친척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요”(롬 8:35).

진정한 변호사

욥은 그의 구속자를 자신의 친척과 자신을 변호하시는 자로 보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는 모든 거짓된 고발로부터

속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원수의 손으로부터 대가 지불과 권능, 이 두 가지 모두를 통해 벗어나게 하십니다.

진정한 보호자

욥은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서 참된 부요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구속자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사라져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여전히 구속자를 붙들고 있으며, 구속자는 그

었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며 보호하시는 구속자에게 매달렸습니다. 더 나아가 욥은 마지막 날에 자신을 정결케 하신 그의 의가 되시는 구속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으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권능을 소유하시며 신성한 변호사이신 주께로 오고 계십니까?

진정한 확신

욥은 어떤 불확실한 일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알기에는”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 의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인 것 만만큼 확신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은 확실한 증거를 이끌어 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 들이고 깨닫는 일을 실제적이 되게 합니다. 욥에게 다가온 시련이 아무리 가혹하다해도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구속자의 마음 또는 변호자의 삶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욥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은 그를 실패의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구속자의 생명은 그 자신을 고난 속에서 일어나게 하고 결코 의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참된 구원의 근원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

욥처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위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사물스러운 친족이신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경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01년의 새로운 해가 시작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친족이시고,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주시며, 여러분의 참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욥처럼, 여러분들도 구속자의 생애를 아시길 기도합니다. 욥과는 달리, 평안한 믿음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

욥은 영원히 그에게 매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자는 욥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는 다 잃어버려도
그의 친척과 같은 구세주, 하나님의 구속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 변호함으로써 우리의 무리함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모든 비웃음과 조롱으로부터 변호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진실로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는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떠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본에서 깨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속 3:2) 하느님로부터 들리는 음성! 우리를 확신시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 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겔 12:10). 아멘! 예수는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명에서부터 풀어주실 구속자이십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소유와 특권과 기쁨을 되찾아 주실 구

를 위해 살아 계신 분입니다. 욥은 그들과 같이 모셔들었고, 그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욥은 이미 구속자에게서 어떠한 능력을 느꼈고, 자신의 끔찍한 상황에서조차 모든 것이 그와 함께 할 때 유익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한 욥에게 구속자는 보호자이기도 했습니다. 욥은 영원히 그에게 매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자는 욥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는 다 잃어버려도 그의 친척과 같은 구세주, 하나님의 구속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진정한 중보자

욥은 죽어가는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살아있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욥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위대하신 주님, 자신을 건디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영존의 아버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께 자기와 그의 집의 머리아픔을 믿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서 간구하시는 중보자되신 구속주를 붙들고 있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이들

천은 주(스리랑카 단기선교부)



스리랑카는 참 아름다운 곳이었다. 땀 흘리고 있는 듯한 생동감도 느껴지고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도 느껴졌다. 땀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같은 말,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출연교회 성가대에서 몇 년 동안 봉사하셨던 최영장 집사님과 채영은 권사님 내외와 그 분이들이다. 최영장 집사님은 그 곳에서 양초공장장을 하고 계셨다. 집사님 내외는 현지에서 양초공장을 하시면서 그 곳에 개신 선교사님과 스리랑카에 단기선교를 위해 온 선교부들을 대접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기간에는 스리랑카에 개신 선교사님의 거주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길게 약기간이 만료 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사실 스리랑카가 낯선 우리로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 최영장 집사님이 양초공장 직원을 통해 집 얻는 문제를 알아봐 주셨다. 현지인을 통하나가 가격도 훨씬 저렴했고 또 앞으로 여름, 겨울 단기 선교팀이 올 경우 분기지도도 쓸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이었다. 이사를 하는 날도 그 집사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트럭을 몰고 와서 손수 침대, 탁자 등을 나르며 이사하는 일을 도와 주셨다. 이사를 마치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그때 그 집사님이 겸연쩍이 하시며 하시던 말씀이 기억난다. "별 말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 동참하게 해 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합니다."

스리랑카 음식의 향에 지쳐갈 무렵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던 그리웠던 한국 음식들, 함께 잤던 고등부 대원들을 통해 울음 하나라도 더 배워 그 곳 현지 교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 애쓰시던 집사님 내외와 그들의 귀한 자녀들. 낯선 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소중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깊이 감사했다.

몽골땅에서

장순옥 (몽골단기선교부)

7박 8일간의 짧은 선교일정은 몽골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몽골팀의 교사로 봉사하면서 그들에 대한 더 큰 친밀감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광활한 초원에서 유목생활을 하며 그들의 삶을 강인하게 단련시켜왔던 몽골 사람들에게는 이 겨울의 혹독하고 긴 추위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은 이방인인 나에게 그들의 깊고 긴 역사와 함께 한 이들의 그들과 새 시대를 향해 조금씩 눈과 마음을 열어 가는 모습을 동시에 사실적인 그림을 보듯 바라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주님께서 이 몽골 땅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읽으면서, 몽골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태고, 복음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께를 알아갈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미 몽골에 귀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음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헌신되고 신실한 주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심을 매순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몽골 분이 우리에게 몽골의 속담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것은 "준비된 음식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나쁜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것이었다. 이렇듯, 그들의 환대는 참으로 따스하여 어떤 적 우리 어른들의 깊은 인심과 사랑을 기억나게 하였고, 그들에게 같은 동양인으로서의 동질감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단편적인 부분들로부터

우리 총현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몽골을 향해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열망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의 열심을 기억해야 하리라

나는 이번 단기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해 왔다. 기도를 하며 나약하고 허물 많은 내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형용할 수 없을까? 그랬다는 것과 그 동일한 사랑을 몽골의 영혼들에게도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함께 한 대원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배우는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 가는 것이며 삶과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자이며 그리고 서로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들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총현 교회에 나오는 몽골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주님, 주님이 이방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모든 은혜들을 저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감격으로 깨닫게 하소서."

몽골에 그리스도를 전하러 갔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그리고, 스티브(C.T. Studd) 한 말이 다음과 같이 마음에 여운으로 남는다. "가장 멀리, 가장 밝게 비추는 빛은 가장 가까운 집안으로부터 빛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어떤 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갖지는 못할 것이다."



나혼자 전할 수 없잖아요

나만의 하나니? 우리의 하나니!

강영자 (집사, 7교구)

보여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이었다. 피조물이 피조물의 주인을 보지 못하고 허구를 바라보며 그것으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다. 또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빛으로 알지 못하는 무지렁이였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끊임없는 사랑의 메세지를 전하신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그들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 그 분은 나에게도 찾아 오시어 나의 단죄된 일 속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셨다.

"내 영혼이 은총 깊이 잠한 죄된 빛과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어떻게 전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중앙병원 일 병동에서 매일매일 육체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기에 복음을 들고 달음박질한다. 정말로 주님이 역사의 현장에서 마치 기다리시거라도 한 것처럼, 그분들은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한다.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속하셨는 그 예수님!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빛진 자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복을 전하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우리이다. 이제 우리가 가져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지 않았는가?

선교 기도회

일시 : 27일(화) 18:30

장소 : 만나홀

대상 : 선교위원, 실행위원, 외선부교사, 단기교도 참가자, 선교관심자

13기 LMTC(총회선교훈련원) 개강예배

일시 : 3월 4일

장소 : 베다니홀

회보 : 5만원

대상 : 2001년 여름, 겨울 단기선교 지방자들은 필히 참석해야 함
(6개국 방글라데시, 몽골, 스리랑카, 수단, 우즈베크, 인도)

제3기 1년 단기 평신도 선교사 모집

모집기간 : 수시

모집대상 : LMTC 수료자

제출서류 : 봉사부서장 추천서, 교구장 추천서

사역국가 :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김영암 단기평신도 선교사 파송

총현교회 선교위원회는 김영암 단기평신도 선교사를 탄자니아 칸지바로 지난 9일 파송했다.



고3 후배들과 함께

정 성 민 (대학부 간사)

새삼 고3이라는 후배들을 생각하니 몇 년전의 내가 떠올랐다.

입시 때문에 바쁘고 지친 생활들을 돌이켜 보면 그렇게 좋았던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다. 누구한테나 힘들거나 지친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땐 왜 이리 더 힘들었는지...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큰 일들에 싸여서 나 아갈 틈과구를 발견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에 더 그러했는지도 모르겠다.

12월 21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고 교회로 향했다. 오랜만에 수련원에 간다는 설렘을 안고 또 예쁘고 맛있는 고3 후배들을 만나는 기대에 집을 나섰다. 오자마자 제2교육관 1층에 TEA타임을 즐기고 있는 팀원들을 만났다. 다들 피곤한지 게슴츠레한 눈을 해 가지고 있었지만 후배들을 보고 싶은 맘은 한결 같았다. 하나하나 팀원들이 도착하고 고3 후배들도 도착했다. 서로 서로 어색한 눈빛처럼 보였지만 왠지 친동생처럼 보인다 할까?... 너무 귀엽고 이쁘긴한 했다.

고3 후배들과 함께 하는 모든 시간들이 즐겁기만 했다. 선택적 특강을 들으면서 후배들은 서로서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 감으로써 자신의 비전을 찾고 또

알아 가는 시간들을 가졌다. 나는 "Q.T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주제의 강의로 고3 후배들과 만날 수 있었다.

처음으로 고3 후배를 본 느낌은 어린아이를 등에 업었다고나 할까?...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주시는 우유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 아무튼 나는 그 영혼들에게 주어진 어떤 비전이 있다면 깨우쳐 주어야 하고 조금이나마 방향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여러 영혼을 사랑하고 생각해 보았는가?" 이런 질문을 아무에게나 던진다면 맞이나 되는 사람이 "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단지 홍보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누군가에 의해 시켜지는 대답이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는 고3 후배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야 한다. 대학부에 들어옴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잡아주고 인도해 주어야 하며 후배 입에서 나오는 한 마디 한 마디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관심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고3 후배들에게도 관심을 갖고신다. 하지만 그럴 알지 못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 사람들은 더욱 더 낮은 자리에서 후배들을 바라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일정을 끝내고 각자 팀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후배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같이 게임도 하고 다과도 나누며 고민거리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후배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들이서 같이 열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그 동안 무거웠던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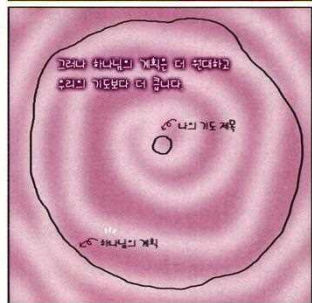
다음날 기도원을 떠나며 버스 안에서 나누었던 고3 후배들의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본다.

"형! 저 대학부에 올라가서도 잘 할 수 있겠죠?"

"그럼!!"

만평

글 · 그림 장민 / (minj74@jaangminn.com)



>>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가 필요합니다!!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하기 보다 난 널 '잘 알라'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유 병 규 (대학부 6학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과연 얼마나 그 사람을 알고 사랑한다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때론 의심이 때때로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속에는 정말 사랑하는 말도 있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더 큼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저 뿐만이 아니겠죠? 모두가 그렇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집회마다 기도할 때 혹은 그냥 만나는 가운데서도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으로!'가 따라나선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예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내가 힘들 때 위로를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가 받은 그러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공동체의 개개인을 잘 몰라도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을 조금씩 알기 원하고 그로 인해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소망함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많이

인색해 있습니다. 부흥회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열의 잘 모르는 사람과 인사하려고 하면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보면 그냥 해-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구요.

사랑에 인색한 이유중에 하나는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지 못했기에 사랑하는 법을 모르죠! 다정다정인 인사 한번이 사랑인데 '어떻게 지내냐?'라고 한번 물어주는 게 사랑인데 그걸 모르죠. 이러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그것이 사랑이란 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인색한 이유중에 또 하나는 반응이 없다는 것이겠죠. 쪽스럽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답할 줄은 다는디 너 어디 아프냐니 하면서 거부하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말 한 마디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대...

사랑에 인색한 이유중에 마지막 하나는 행함이 뒷받침 되지않기 때문이겠죠. 사랑한다고 해 놓고선 힘 들 때만 척하고, 중보해 주지도 않고 짜증내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자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말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와 감동보다는 단지 가식적인 말로만 들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설여져 있겠죠.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요일3:18)

저는 대학부 제제들을 정말로 사랑했으면 합니다. 그냥 예수님과 사랑만 하는것이 아니라 그 분께 사랑을 우리 서로 나누고 배분했으면 합니다! 행함없이 말뿐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까? 그 좋은 이유는 것이겠죠.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그 사랑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장점을 칭찬해주고 단점은 감싸주며 기도로 중보해주는 제제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저부터가 그렇게 해야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스라엘은 겨울이 되면서 우기가 시작됩니다.

여름 내내 반 년간의 긴 가뭄이 끝나고

바가 오기 시작하면 농부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2~3일마다 비가 내려 온 땅이 흠뻑 젖곤 하죠.

팔레스타인 지역 시골 농부가

나귀를 앞세워 밭을 갈고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밭가는 한 농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농부는 밭갈이에 열중중이라

누가 오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더군요.

"쌔라 말레이요!"

인사를 건넌채 그 때와 뒤를 돌아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며 주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쟁기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는 팔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 말입니다. 밭을 가는 쟁기처럼,

인생을 기거하는 '말씀'을 붙잡고

한는 팔지 않는 순종의 신앙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순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여라 하시니라"(눅9:62)

(빛과 소금 2001/2 에서 발췌)

(구역예배 활성화를 위한 제안)

구역 복음으로 공략하라

최 효 심 (전도사, 15교구 부지도)



세태의 분주함이 교회 구역에 배에도 침투하여 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비해 구역장들의 점이 가뭄지간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구역장은 구역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 복음화된 체질이 구역을 공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의 문화도 아니고 구역장 개인의 경험도 아닌 바로 복음화된 구역장 자신이 구역의 요소를 공략해 낼 것이다. 복음화된 구역장이 구역예배를 통해 구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1.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복음은 지식과 실천을 병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엄청난 결실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복음은 결실로 갈 수 있을지를 기억해야 한다. 나태함이 복음을 회색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구역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라. - 그들을 내버려 두기 위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해 파악

해야 한다. 커피를 먹어야 할 구역원이 고기를 먹다보면 교만해져서 복음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고기를 먹어야 할 구역원이 젓반 먹으면 힘을 쓰지 못하여 쓰러질 것이다. 구역원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구역장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책임있는 사역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바란다.

3.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라. - 공과를 전달하기 위한 준비와 구역원에 대한 파악은 공과시간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다보면 가수가 많은 구역은 시간이 모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는 핵심을 붙

잡아 함께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고백은 모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구역원들을 구역장에게 맞추기보다 복음의 능력앞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도자 자신의 생각을 복음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허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한 위의 3가지 실천사항 이전에 더욱 근본적인 요소는 복음화된 구역장 자신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충현교회화된 구역장도 아니고, 종교화된 구역장도 아닌, 복음화된 구역장이 구역을 살릴 수 있다. 내가 복음화된 구역장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자.

+ 양호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김금이 요청됩니다.

5교구 김양녀 집사(여73세) 신부전증으로 관상동맥 절단 연결수술 후 영동세브란스 중환자실에 입원중이고, **정옥경 권사(여97세)** 빗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수술 후 서울병원 406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고길중 성도(남41세)** 간암, 직장암, 대장암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 410호실에 입원해 있으며 불면증과 황달 증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니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황태권 집사(남52세)** 심장혈관수술 후 치료중입니다.

7교구 정범용 성도(남42세) 급성 골수 백혈병으로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혈소판(혈액형 A) 기증자 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진심어린 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 지난 주(2월4일) 양호실에서
정범용 성도의 나이를 72세에서 42세로
정정합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조기제' 성도를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조금 다녔던 적이 있으나 그 후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어머님이 믿으시고 아내도 믿기에, 늘 자신도 믿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게 되었다. 어머니와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너무 멀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새가족부에서 성경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믿음생활 하려 한다.

'박선옥' 성도를 소개합니다



중국에 살 때는 열심히 믿었다. 그러다 한국에 오게 되었고, 취직하여 일을 하다가 유호남 권사의 인도로 충현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한국에 오게 되었을 것이 고 믿음생활을 충현교회에서 하게 되어 감사한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투명 그루

십자가의 사랑

송 병 열 (집사, 12교구)



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아내가 필요할지 마다 전도하던 병원의 목사님을 통해 대학병원으로 옮겨 있었고 그곳에서 3차에 걸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수술받기까지 9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동안의 고통과 아픔, 쓰라림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리의 붓기로 수술이 어려웠지만 위급한 상황인지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저는 2차 수술시간이 많이 나빠 수술하기 힘들다는 충격적인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부에는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부모님과 형제들, 어린 아들과 아내의 철야기도로 간이 나쁘면 마취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위험에서도 수술을 잘 받고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은혜였습니다.

7개월 정도 병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들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는 교만하였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던 저는 몸이 건강하다고 자부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더욱 자신있었습니다. 또한 더욱 교만했던 것은 저는 병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 '너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였는지요. 둘째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수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수평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기도와 위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이것이 수평사랑이구나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저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수직과 수평으로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건강을 되찾고 더욱 조심하면서, 즐겁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느꼈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호하심, 간섭하심을 찬양, 찬양, 찬양드립니다.

2000년 4월 1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당한 교통사고로 저는 7개월 동안 3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동안의 투명과정을 통해 체험한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해 주신 섭리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사고 당시 기억 나는 것은 평소 소리와 함께 저의 몸이 공중에 붕 뜬 것과 꼭 매지않은 헬멧이 날아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짧은 순간 '머리, 머리, 머리' 하는 음성이 들려 양팔을 오그려 머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리를 감싼 팔은 제가 땅 바닥에 떨어질 때 저의 머리를 보호하였습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만약 머리를 팔로잡지 않았더라면 사망했거나 살아도 식물인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큰 사고였기에 안양 병원에서는 큰 대학병원으로 가야한다고 말했고, 아내와 아들은 3시간 동안 여러 병원들을 알아보았지만 토요일 오후인지라 갈 수 있는 병

예수님의 신앙고백



예수님!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하고는 싶지만 몸이 그렇게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몸속에는 성령님이 있어서, 제가 어느 날 기도를 안하면 성령님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갖게되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옛날에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까. 그 말을 요셉에게 깨도 하였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있다가 사람과 똑 같이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다녔습니까. 사람들은 도저히 믿지지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저런 가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까?" 어느 날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만에 다시 예수님은 살아났습니까. 손에는 큰 대못자국이 있었고, 발에도 대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따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하였습니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거나니."

그리고는 성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나의 기도

이선경 (소년부 믿음10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해 보았던 적은 내가 버섯 살때이다. 그 날은 내가 손꼽아 기다리던 동생이 태어나서 할머니와 아빠, 내가 수술실 앞에 앉아 있었는데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 선생님께서 아기를 수건에 싸고 뛰어가시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가 뛰가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앉아 있었다. 그 때 수술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바한데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 보라고 하셨다. 다 같이 이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 동생을 이걸 저것 검사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나는 무서웠지만 왜 그러냐고 아바에게 여쭙어 보았고 아바는 숨을 쉬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나도 정신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랐다. 그 때 할머니께서는 의사 위에 올라서서 내 동생이 있는 인큐베이터를 쳐다보는 나를 보고 "선경아,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하셨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나는 잘 몰랐지만 내 마음 속에는 벌써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기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제 동생이 아프지 않고 빨리 퇴원해서 저랑 집에 가게 해 주세요." 27일을 그렇게 똑 같이 매일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비록 이마, 손 여러군데에 주사코트는 자리는 남아 있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름에 정말 제 동생이랑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비파와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고백

영아부 믿음 3반 김은서 영마 조인애

"아가야, 아가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저는요, 하나님 나라 일꾼 될래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일꾼이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라야 하죠."

영아부의 많은 아가들이 들으며 자라는 찬송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주 기쁘고 또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기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느새 그 아기는 나의 것이 되어 부족한 엄마의 생각대로 착지우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아가와 함께 부를 때마다 아기에 대한 장래의 기대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새를 새롭게 다지고 합니다. 아기가 자기 가족뿐 아니라 이집트를 구했던 요셉처럼, 믿음으로 굴치기 않았던 다나엘처럼, 하나님의 사명으로, 마음이 깨끗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0개월 된 아가와 함께 이번 주도 영아부 믿음을 믿습니다.

진리의 생

느헤미야(Nehemi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 배우기 전에, 지난 번에 배운 포로귀환시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겠지요?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 2차는 에스라에 의해, 그리고 3차는 이번 배운게 될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연관된 사건은 1차와 2차 포로 귀환 시대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이제 그러면 느헤미야를 어떻게 읽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다가 각각 포로 귀환이라는 상황에 적합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 에스다는 '절사적 신앙' 그리고 에스라는 '영적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에는 어떤 주제가 담겨있을까요? 첫째로 '성벽 재건'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성벽재건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영적인 지도도'(spiritual leadership)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어 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도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울던 모습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던 의미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의 용모를 극복하며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을 잘 조형해 주기도 하니까요. 물론 느헤미야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에스다가 같은 이들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들의 몫이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방치해 버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듯이, 이방나라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사용되도록 도전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행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김동하 목사-술관원 지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믿니



우리의 만남

언뜻 스치거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 다.

매칠 전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그와는 대입을 준비하는 동안 만나 서로의 의지가 되어주었던 사이였다. 그러나 서로의 다른 삶 속에서 한 동안 가 닿게 잊고 있었다. 이렇게 나의 메일 장소를 알아내었노라는 친구의 마음이 고마워 후자 호환한 미소를 띠고 있다가 유지원부터 모아 두었던 졸업앨범을 꺼내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별 반이었는데, 답신생님이 누구였지도 벌써 가물거렸다. "지구의 어느 곳에 바늘을 하나 꽂아 놓고 먼 우주에서 실을 하나 떨어뜨려서 그 실이 팽창거리면서 떨어져 그 바늘과 만나게 될 확률로 우리는 만났다" 요즘 개봉한 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대사이다. 어느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연'에 근거한 설명이었다.

잠시 다는 얘기를 해보자. 진화론자들에게 창조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우주가 우연히 탄생해 진화했을 가능성은 비행기의 고철들이 모여있는 곳에 바람이 불어 우연히 비행기가 조립될 확률보다 낮다"라고 반박한다. 하나님의 신적, 주권적 창조가 아니란 건 인지가 현실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동일한 가정을 해 본다. 만약 그 영화의 대사처럼 사람들의 만남이 상상할 수 없는 확률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인연'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신구약을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일하신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러기에 졸업앨범을 바라보며 잊었던 친구들과의 '인연', 다시말해 '하나님은 왜 나와 그의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지금 나와 만남을 갖는 사람들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우리의 만남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로 십자가를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셨다. 그러므로 백여 년 전 이 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셨고, 사십 여 년 전 총현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성도로 만나게 하셨다.

그 과정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 이 시간 손을 모은다. 그리고 입가에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라는 찬양이 났다.

(박철중 전도사)

교회소식 / 새가족

[illegible]

새 · 가 · 족 · 을 · 화 · 영 · 한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처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처	인도지
194	배영숙	1	제2지부	구원협(1)	139	박지연	5	교동부	
195	김민서	1	제2지부	구원협(1)	140	박지연	5	교동부	
196	홍영희	6	제1지부	120	김민서	1	제2지부	구원협(1)	이영현(지9)
197	장기영	6	제1지부	121	김민서	1	제2지부	구원협(1)	송미경(지7)
198	김민서	6	제1지부	122	안윤경	19	제1지부	송미경(지7)	
199	김민서	19	교동부	123	김민서	19	제1지부	송미경(지7)	
200	김민서	19	교동부	124	이혜숙	19	제1지부	송미경(지7)	
201	김민서	19	제1지부	신대협(3)	125	이혜숙	192	제1지부	이영현(지9)
202	김민서	19	제1지부	신대협(3)	126	이혜숙	192	제1지부	이영현(지9)
203	김민서	19	제1지부	신대협(3)	127	이혜숙	19	송동부	이영현(지9)
204	김민서	19	제1지부	신대협(3)	128	조수정	19	송동부	이영현(지9)
205	김민서	2	제1지부	김대협(1)	129	김민서	19	송동부	이영현(지9)
206	김민서	2	제1지부	송동협(4)	130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07	김민서	2	제1지부	송동협(4)	131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08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32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09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33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10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34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11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35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12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36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13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37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14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38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15	김민서	2	제1지부	송동협(4)	139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16	김민서	2	제1지부	송동협(4)	140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17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41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18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42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19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43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20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44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21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45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22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46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23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47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24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48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25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49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26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50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27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51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28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52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29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53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30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54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31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55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32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56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33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57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34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58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35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59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36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60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37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61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38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62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39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63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40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64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41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65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42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66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43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67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44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68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45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69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46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70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47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71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48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72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49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73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50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74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51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75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52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76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53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77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54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78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55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79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56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80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57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81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58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82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59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83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60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84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61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85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62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86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63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87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64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88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65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89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66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90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67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91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68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92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69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93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70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94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71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95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72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96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73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97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74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98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75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199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76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00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77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01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78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02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79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03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80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04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81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05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82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06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83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07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84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08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85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09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86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10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87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11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88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12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89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13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90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14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91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15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92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16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93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17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94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18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95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19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96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20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97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21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98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22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299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23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00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24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01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25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02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26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03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27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04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28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05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29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06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30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07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31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08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32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09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33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10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34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11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35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12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36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13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37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14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38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15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39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16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40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17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41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18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42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19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43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20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44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21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45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22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46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23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47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24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48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25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49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26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50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27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51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28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52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29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53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30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54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31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55	송민서	19	제1지부	이영현(지9)
332	김민서	19	제1지부	송동협(4)	256	송민서	19	제1지부	

※ 충청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전기감사 실시

1. 대상기간: 2000년 결산과 2001년 1월
2. 대상기관: 각 위원회 산하 전 부서
(단, 남녀 자 진도되는 진도위원회와 감사를 받고, 경찰, 교정, 실업
인, 이민, 학원 등 특수진도하는 본 감사를 수감할 것)
3. 제출서류:
시산표(2000년 결산, 2001년 1월 시산표), 공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증빙자료, 시제 현금 또는 현금등가인(금 포함)
4. 감사시점: 2001. 2월말 또는 3월 말까지와 연말까지
5. 감사실시장소: 제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회하실(354坪)

중현중보의창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임하시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이지도자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로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절절한 통로로 사용하시어 주시라.

2) 김창일 위임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음의 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영을 소유케 하란 뜨거운 열정과 경건한 능력으로 유하여 주시라.

3)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임에 이르기를 힘쓰게 하소서.

4) 총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모든 위임교회에 속한 이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6) 총회에 구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드리라.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안수집사 부부 친교 모임

안수집사회에서는 160명이나 되는 안수집사들이 한 교회에 봉사하면서도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서로 인사도 하고 믿음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안수집사 부부단합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이번 모임을 통해 안수집사들이 많은 정치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바란다.

일시: 2월 15일(목) 저녁 6시30분
장소: 만나홀
대상: 안수집사 부부

남녀전도부 회장단 영성훈련

일시: 2001년 2월 22일 17:30
장소: 만나홀, 갈릴리움
대상: 각 전도회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출현복지관 직원모집

모집분야

1. 그룹홈 교사 1명(남녀) :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
2. 행정사무직(총무팀 근무) 1명(여) : 고졸 이상

(경력 2년 이상)

연락처 : 564-4885(내선 106번)
서류 마감 : 2001년 2월 15일까지

교회오시논길



2001충현체육대회 집행위원 확대회의

오늘 오후 3시, 당회실에서

당회원, 교역자, 안수집사와 권사회 임원

세부 준비에 들어가, 장소는 수도공고

믿음, 사랑, 충성, 용기로 탐구

5월 1일 2001 춘천체육대회를 앞두고 모든 준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획, 경기, 지원본부로 나누어져 준비하고 있는 각 본부는 매 주일 회의를 가지며 체육대회를 구체화 시키고 있다. 지난 주일에는 교구장 회의에서 심지를 뽑아 각 팀을 구성했다. 또한 장소가 수도권으로 결정되고, 경기종목과 시간계획, 각 구 구성 등이 정해졌으며 세부별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궤도에 올랐다.

이에 집행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 3시, 선교관 5층 당회실에서 집행위원 확대회의를 열어 내보준바 사항을 안건 목록을 검토하고 재

오늘 모임의 대상은 당회원 전원, 교역자 전원, 안수집사회 임역원과 권사회 임역

모임에서는 각 본부 및 분과별 실무위원을 선정하며 지금까지 정해진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제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모든 준비가 원만하고 완벽하게 됨으로 온 교우들이 모여 화합과 교제의 장으로 모임은 체육대회가 보다 원래의 취지대로 진행되도록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될 것이다.

각 팀은 다음과 같다.

- (1, 3, 6, 11교구)

(7, 9, 13, 15, 17)

성 · 기 · 능 · 보 · 도

■ 위임목사 김성관

- | ■ 시무장로 | | | | ■ 부목사 | | | | |
|--------|--------|--------|----------|--------|-----|-----|-----|------|
| 김희철 | 조진근 | 김은호 | 노정환 | 이우성 | 이종대 | 이승수 | 정현민 | 김동하 |
| 가톨릭 | 가톨릭 | 성원교회장로 | 동학리 | 자복동 | 김경태 | 사상진 | 사상진 | 김동석 |
| 오진국 | 이준환 | 윤원익 | 최태환 | 이종진 | 백기근 | 이성기 | 류병희 | 정복성 |
| 하북동 | 고구려교회 | 신곡교회 | 신곡교회 | 이종현 | 이종현 | 이영진 | 여국근 | 김교섭 |
| 임필섭 | 강모용 | 오정환 | 이 훈 | 송진환 | 이종현 | 안창덕 | 방명연 | |
| 영남동 | 영남동 | 1교구 | 신영교회 | | | | | |
| 남순수 | 서동석 | 정문석 | 김영경 | 신교사 | 정은희 | 권덕일 | 최은아 | 권요숙 |
| 3교구 | 영남동 | 8교구 | 제1교구 | | 이요숙 | 이요숙 | 이요숙 | 이요숙 |
| 문용구 | 조진제 | 김종구 | 최부길 | | 허용구 | 주희희 | 이오영 | 추은호 |
| 유사동 | 유사동 | 17교구 | 여해교회 | | | | | 신영교회 |
| 김진태 | 이창호 | 차신득 | 김재명 | ■ 협력선사 | 하연희 | 조희희 | 김기영 | 김기영 |
| 영남동 | 영남동 | 김사동교회 | 김사동교회 | ■ 전담장로 | 강기근 | | | |
| 박익성 | 강남남 | 이종석 | 윤상철 | ■ 전담사 | 김영기 | 이종대 | | |
| 재정동 | 재정동 | 5교구 | 가톨릭교회 | ■ 영도사 | 김경희 | 최희재 | 송할자 | 신동하 |
| 이하영 | 박진근 | 김인관 | 이백용 | 윤원숙 | 김옥운 | 한영순 | 최희선 | 송순애 |
| 13교구 | 13교구 | 5교구 | 제2교구교회장로 | 이종진 | 김달자 | 안철동 | 최희선 | 백병자 |
| 안종옥 | 최경환 | 임무천 | 이종섭 | 김경진 | 조옥자 | 강덕필 | 김정신 | 장계구 |
| 2교구 | 제2교구교회 | | | | | | | |

에세이 아나

구분		시간	장소
주요매체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신·회관동(새마을))	본당
	IV	오후 1000(동(새마을))	본당
	V	오후 300 (동(새마을))	본당
찬양 매체		오후 500	본당
수요 매체		1오전 1100 ~ 2오후 700	본당
금요일 매체		오후 700	본당
세빛가도 매체		오후 500	본당